

『사고전서총목제요』 유서류의 내용기술 분석

An Analysis of the Contents Description in Youseoryu of *Sagojeonseochongmokjaeyo*

한 미 경 (Han, Mikyung)*

◁ 목 차 ▷

- | | |
|------------|-----------|
| 1. 서 론 | 5. 내용의 고증 |
| 2. 유서류의 주제 | 6. 종합분석 |
| 3. 내용의 고찰 | 7. 결 언 |
| 4. 내용의 분석 | <참고문헌> |

< 초 록 >

이 논고는 『사고전서총목제요』 유서류 제요 65종과 존목 217종의 총 282종 문헌의 내용기술 분석을 목적으로 하였다. 유서류의 주제, 내용의 고찰, 내용의 분석, 내용의 고증 등 네 개의 대분류 이하 열 두 개의 세분류로 항목을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1) 유서류의 주제는 제요와 존목이 공통적으로 종합적 유서와 문구 유서가 가장 많이 조사되었다. 2) 열 두 개의 세분류 조사항목 중 기존 문헌의 편집과 서명의 설명이 가장 많이 조사되었다. 3) 제요는 정사와 사지목록의 기록 인용 고증, 국가와 사가목록의 기록 인용 고증, 서명의 설명 등이 많이 조사되었다. 4) 존목은 기존 문헌의 편집이 가장 많이 조사되었으며, 서점과 서적상 등의 상술과 같은 내용의 기술이 조사되었다.

『사고전서총목제요』 유서류의 내용기술 분석을 통하여 제요는 『사고전서』에 선사 수록된 문헌이므로 구체적으로 내용의 설명과 고찰 및 고증이 이루어졌고, 존목은 사고본으로 수록되지 않는 이유 등이 주로 기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要語: 『사고전서총목제요』, 내용기술, 유서류, 제요, 존목

< ABSTRACT >

This paper was written to analyze contents description of total 282 kinds of literature including 65 kinds of Jaeyo (description) and 217 kinds of Jonmok (catalogue) in Youseoryu of *Sagojeonseochongmokjaeyo*. The investigation is based on the classification of 12 sub-categories under four major categories including subject of Youseoryu, review on the contents, analysis of contents, and historical research of contents.

1) On the subject of Youseoryu, both Jaeyo and Jonmok have more comprehensive Youseo and writing style Youseo than any other categories. 2) Of twelve sub-categories of investigation items, the editing of existing literature and the description of book titles were more investigated than any other sub-categories. 3) Jaeyo has mainly description of the historical research by records of official history and bibliographical catalogues and national and individual catalogues and the description of book titles. 4) Jonmok has more editing of existing literature than any other categories and contents such as detailed description of book stores and book sellers.

In other words, Jaeyo is literature in neat handwriting with concrete explanation, review, and historical research, while Jonmok has description of why it is not taken as handwritten text.

Key words: *Sikuquanshuzongmutiyao*(*Sagojeonseochongmokjaeyo*), contents description, youseoryu, jaeyo(description), jeonmok(catalogue)

* 경기대학교 휴먼인재융합대학 문헌정보학과 조교수(bib4u@kgu.ac.kr)
투고일: 2020년 2월 20일 최초심사일: 2020년 3월 1일 게재확정일: 2020년 3월 15일
서지학연구, 제81집, 113-137, 2020. <https://doi.org/10.17258/jib.2020..81.113>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古典’은 사전적으로 ‘예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시대를 초월하여 높이 평가되는 문학 예술작품’을 의미한다. 반면 서지학적으로 古典은 옛 전적으로 귀중한 책의 또 다른 단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는 필사나 전사 또는 간인되어 오랜 기간 전하면서 보존과 전래방법 등의 한정적인 이유로 전래본이 많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후대에 고전을 전달해주는 방법 중 전래본과 같이 실물로 전해지는 방법 외에 기록을 통한 방법이 있다. 그중 정사나 예문지나 경적지의 사지목록 등에 실리는 방법과 국가 또는 개인에 의하여 전적이 정리되면서 작성된 다양한 기준의 목록류에 실려 전해지는 방법이 있다. 그중 후자의 대표적인 서지 목록의 하나로 청대 건륭제 년간에 이루어진 『사고전서』에 수록된 문헌을 해제하거나 목록으로 소개하고 있는 『사고전서총목제요』를 들 수 있다. 즉, 현대의 우리는 『사고전서』를 통하여 많은 고전의 실물을 접할 수 있고, 『사고전서총목제요』를 통하여 당시 『사고전서』로 선사된 문헌의 해제 외에 실리지는 않았으나 존목으로 목록화된 당시 전래본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 그 중 『사고전서총목제요』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주로 서지목록적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¹⁾

이에 이 논고는 『사고전서총목제요』 유서류를 대상으로 내용기술 분석을 진행하고, 제요와 존목 유서류의 내용기술의 차이를 살피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2 연구의 방법과 범위

이 논고는 『사고전서총목제요』 유서류의 내용기술에 대한 분석을 목적으로 서지학적 연구방법, 문헌연구법 및 역사연구법으로 진행하였다. 구체적인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고전서총목제요』 유서류의 내용기술 분석을 위하여 제요 65종과 존목 217종의 총 282종 문헌의 내용기술을 대상으로 하되, 내용기술의 외연적 의미를 대상으로 하였다.

둘째, 내용기술 조사항목은 유서류의 주제, 내용의 고찰, 내용의 분석, 내용의 고증의 네 부분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1) 유서류의 주제는 대표적인 내용으로 정리하였다. 또한 2종 이상의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경우

1) 리상용, “『四庫全書總目提要』의 목록기술방식에 대한 연구,” 『서지학연구』 69집(2017. 3), 267-286. ; 리상용, “『四庫全書總目提要』와 『四庫全書簡明目錄』의 목록기술요소 비교 연구,” 『서지학연구』 73집(2018. 3), 179-203. ; 趙永來, “『四庫全書總目提要』의 ‘凡例’와 ‘案語’ 연구: 『凡例二十則』의 譯注를 중심으로,” 『서지학연구』 53집(2012. 12), 111-153. ; 趙永來, “『사고전서총목제요』의 ‘법례’를 통한 『홍씨독서록』 서지분석의 범주 연구: 『홍씨독서록』 『史部』를 중심으로,” 『서지학연구』 61집(2015. 3), 201-230. ; 한미경, “『사고전서총목제요』 유서류의 서지기술 분석,” 『서지학연구』 79집(2019. 9), 127-159.

‘종합’으로 분류하였으며, 일관성을 위하여 ‘고문’과 ‘문체’ 등은 ‘문구’로 ‘시귀’와 ‘사부’ 등은 ‘시문’으로 통일하였다. ‘아동학습서’와 같은 경우는 ‘학습서, 아동’과 같이 도입어와 설명어로 통일하였다.

한편, 「사고전서총목제요」 유서류의 주제의 조사는 기본적으로 「사고전서총목제요」의 기술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주제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이차적으로 「사고전서」 원문을 대상으로 하되, 원문은 「사고전서」 온라인본과 ‘Guoxuedashi(國學大師)’를 참고하였다. 삼차적으로 중국의 현대 온라인 백과사전인 ‘Baidu(百度百科)’와 ‘Baike(互動百科)’ 등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2) 유서류의 주제 외의 세 개의 대분류를 각각 내용의 고찰(내용설명, 구성과 수록범위, 문헌의 가치, 기존 문헌의 편집), 내용의 분석(서명의 설명, 내용의 평가, 내용의 오류 분석, 저본의 분석, 서점과 서적상본의 고찰), 내용의 고증(정사와 사지목록의 인용 고증, 국가와 사가목록의 인용 고증, 문헌의 비교 고증)과 같이 열 두 개로 세분류하여 조사하였다. 그중 기존문헌 편집의 경우 「사고전서총목제요」에서 기술하고 있는 합편, 재편집, 재구성, 재분류, 증광, 산거, 모방, 요약, 보완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셋째, 일부 문헌의 서명과 용어의 경우 다음과 같이 표기하였다.

1) 「사고전서총목제요」 유서류의 문헌은 제요와 존목의 내용기술에서 언급되고 있는 문헌들과의 혼돈을 피하기 위하여 ‘사고본’으로 표기하였다. 2) 「사고전서총목제요」 유서류의 표기 방식은 ‘錦繡萬花穀前集·後集·續集’과 같이 표기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錦繡萬花穀」’과 같이 서명만 표기하였다. 3) 「사고전서총목제요」 유서류 제요 및 존목에서 기술하고 있는 문헌은 「宋史·藝文志」 또는 「宋志」 등과 같이 다양하게 표기하고 있으며, 이에 준하여 표기하였다.

2. 유서류의 주제

「사고전서총목고제요」 유서류 대상의 제요 65종과 존목 217종의 주제를 조사 정리하면 다음 <표 1>, <표 2>와 같다.

<표 1> 제요 사고본의 주제

서명	주제	서명	주제	서명	주제
135권		23 錦繡萬花穀	종합	45 喻林	문구
1 古今同姓名錄	인명, 성씨	24 事文類聚	종합	46 經濟類編	종합
2 編珠	시문, 시부	25 記纂淵海	종합	47 同姓名錄	인명, 성씨
3 藝文類聚	시문	26 名賢氏族言行類稿	성씨	48 說略	종합
4 北堂書鈔	문구	27 群書會元截江網	과거준비용	49 天中記	박물
5 龍筋鳳髓判	문구, 법률	28 雞肋	고사	50 圖書編	종합

서명	주제	서명	주제	서명	주제
6 初學記	시문	29 小字錄	인명, 아명	51 駢志	고사
7 元和姓纂	인명, 성씨	30 全芳備祖	동식물, 식물	52 山堂肆考	종합
8 白孔六帖	종합	31 山堂考索	종합	53 古儷府	시문
9 小名錄	인명, 아명	32 古今合璧事類備要	종합	54 廣博物志	종합
10 蒙求集注	종합, 학습서	33 源流至論	종합	55 禦定淵鑿類函	종합
11 事類賦	종합	34 玉海	종합	56 禦定駢字類編	종합
12 太平御覽	종합	35 小學紺珠	학습서, 아동	57 禦定分類字錦	문구, 사부
13 冊府元龜	종합	36 姓氏急就篇	학습서 아동	58 禦定子史精華	문구
14 事物紀原	박물	37 六帖補	과거준비용, 문구	59 禦定佩文韻府	역사
15 實賓錄	인명	38 韻府群玉	운서	60 禦定韻府拾遺	운서
16 書敘指南	문구	39 翰苑新書	종합	61 格致鏡原	박물
17 海錄碎事	문구, 고문	136권		62 讀書紀數略	종합
18 古今姓氏書辨證	인명, 성씨	40 純正蒙求	학습서, 아동	63 花木鳥獸集類	동식물
19 帝王經世圖譜	종합	41 排韻增廣事類氏族大全	인명, 성씨	64 別號錄	인명, 별명
20 職官分紀	제도, 관직	42 名疑	종합	65 宋稗類鈔	종합, 일화
21 歷代制度詳說	제도	43 荊川稗編	종합		
22 永嘉八面鋒	문구	44 萬姓統譜	인명, 성씨		

<표 2> 존목 사고본의 주제

서명	주제	서명	주제	서명	주제
137권		74 韻學淵海	전고	61 庶物異名疏	종합, 물명
1 聖賢群輔錄	인물 성현	75 姓匯	인명, 성씨	62 尙友錄	인물
2 錦帶	문제	76 姓鱗	인명, 성씨	63 詩學匯選	시문
3 錦帶補注	문제	77 名物類考	종합, 사물	64 文奇豹斑	종합
4 歲華紀麗	민속	78 異物匯苑	종합, 사건	65 五車韻瑞	전고
5 標題補注蒙求	학습서, 아동	79 匯苑詳注	제도, 관직	66 五經總類	종합, 문구
6 文選雙字類要	문장	80 古今類腴	문구, 성어	67 茹古略集	시구
7 類要	종합	81 彊識略	종합	68 古今好議論	의론, 경학 등
8 春秋經傳類對賦	문구	82 考古辭宗	문구	69 名物考	종합, 물명
9 文選類林	문선	83 雜俎	종합	70 六經纂要	문구, 과거용
10 記室新書	종합, 사물	84 國憲家猷	종합	71 事物考	종합, 사물
11 別本實賓錄	인명	85 文選錦字	문구	72 備吹錄首集, 次集	문구
12 詩律武庫	전고	86 群書纂粹	문구	73 四六霞肆	전고
13 補侍兒小名錄	인명, 아명	138권		74 廣韻藻	운자
14 姬侍類偶	소설유서	1 續文獻通考	종합	75 麗句集	문구
15 璧水群英待問會元選要	종합	2 三才圖會	종합, 도보	76 文苑匯雋	종합
16 翰墨大全	종합	3 正音攬言	문구, 향속	77 事類通考	종합, 사실
17 四六膏馥	종합	4 巨史鈔	종합	78 韻府續編	종합
18 兩漢蒙求	학습서	5 楚驪綺語	시문	79 古今事物原始	종합, 사물
19 續補侍兒小名錄	인명, 아명	6 楮記室	종합	80 古史彙編	종합
20 侍兒小名錄拾遺	인명, 아명	7 注釋啓蒙對偶續編	학습서, 향속	81 子史匯纂	종합
21 野服考	제도, 복식	8 三通政典	과거준비용	82 類雅	종합
22 群書類句	문구	9 類雋	문구	83 萬年統紀	역보
23 古今詩材	시재	10 含元齋別編	전고	84 對類	학습서, 서당
24 十二先生詩宗集韻	시	11 古雋考略	잠언	85 大政管窺	책략서
25 玉海纂	종합	12 藝圃萃盤錄	시문	86 汲古編	고사

「사고전서총목제요」 유서류의 내용기술 분석

서명	주제	서명	주제	서명	주제
26 訓女蒙求	부녀서	13 三才考略	과거준비서	87 天華山房秘藏玉杵白	종합
27 經學隊仗	종합	14 翰林諸書選粹	종합	139권	
28 八詩六帖	시문	15 黔類	전고	1 類姓登科考	과거합격자
29 諸史偶論	종합, 사건	16 祝氏事偶	종합, 사적	2 典制紀略	전고
30 裁纂類函	종합	17 廣修辭指南	문구, 수식어	3 經世篇	과거준비용
31 萬卷菁華	인물, 명현명신	18 縹緗對類	문구, 글자	4 考古類編	제도, 전장
32 三場通用引易活法	문구	19 何氏類鎔	전고	5 希姓補	인명, 성씨
33 啓筭雲錦裳	문체	20 事詞類奇	종합	6 廣群輔錄	인물, 성현
34 啓筭錦語	문체	21 六經類聚	문구	7 氏族箋釋	인명, 성씨
35 啓筭淵海	문체	22 春秋內外傳類選	문구	8 歷朝人物氏族會編	인명, 성씨
36 聚課瓊珠詩對	문체	23 奇姓通	인명, 성씨	9 二酉匯刪	과거준비용
37 對屬發蒙	종합	24 異物匯苑	종합, 사물	10 古今疏	종합
38 賦學剖蒙	시문	25 廣蒙求	학습서, 아동	11 三才藻異	전고
39 啓筭青錢	편지	26 男子雙名記	인물	12 三才彙編	과거준비용
40 敏求機要	전고	27 秘笈新書	제도, 직관	13 千家姓文	인명, 성씨
41 古賦題	시문	28 事物紺珠	종합	14 教養全書	종합
42 類編古今事林群書一覽	종합, 군서	29 姓氏譜纂	인명, 성씨	15 姓氏譜	인명, 성씨
43 增修詩學集成押韻淵海	시문	30 時物典匯	전고	16 李氏類纂	종합
44 群書鈞元	고사, 고어	31 對制談經	제도	17 韻粹	문구
45 聲律發蒙	학습서, 초학	32 諸書考錄	문구	18 宮闈小名錄	인명, 아명
46 別本聲律發蒙	학습서, 아동	33 諸經紀數	문구	19 同姓名錄	인명, 성명
47 四六叢珠匯選	문체	34 八經類集	문구	20 古事苑	고사
48 永樂大典	종합	35 藻軒閣錄補續詞叢類采	문구	21 行年錄	종합, 사적
49 原始秘書	종합, 비서	36 輿識隨筆	문구	22 石樓臆編	제도, 육조
50 群書拾唾	종합	37 事言要玄	전고	23 五經類編	문구
51 群書備數	종합	38 獅山掌錄	전고	24 同人傳	인명, 동성명자
52 姓源珠璣	인명, 성씨	39 諸經纂注	문구	25 古事比	고사
53 群書纂類	종합	40 駢字憑霄	시문	26 政典彙編	제도, 육조
54 韻府續編	자전	41 經濟言	문구, 명언	27 典引輯要	문구
55 策府群玉	문구, 문집	42 事文玉屑	종합	28 廣事類賦	종합
56 典籍便覽	종합	43 朱翼	종합	29 根黃集	문구
57 群書集事淵海	종합	44 史說壹蘇	사건	30 三體摭韻	문구, 시구
58 涉覽屬比	종합	45 唐類函	종합	31 文獻通考節貫	종합
59 文安策略	종합	46 詩萬類函	시, 당시	32 考古略	종합
60 謝華啓秀	문구	47 類苑瓊英	전고	33 考古原始	제왕
61 均藻	자전	48 劉氏類山	종합	34 春秋經傳類聯	문구, 춘추경전
62 哲匠金桴	시부	49 卓氏藻林	종합	35 杜韓集韻	시구
63 可知編	전고	50 史學璧珠	전고	36 古今記林	문구, 수필
64 王制考	제도	51 事典考略	종합, 사적	37 古學捷錄	과거준비용
65 經世格要	전고	52 故事選要	고사	38 讀古紀源	제도, 육관
66 物原	종합	53 劉氏鴻書	문구	39 經濟宏詞	과거준비서
67 五車霏玉	종합	54 儒函數類	전고	40 唐句分韻	시구
68 修辭指南	문구, 수식어	55 蟬史	동물	41 政譜	종합
69 左粹類纂	종합, 사건	56 婦女雙名記	인명, 부녀자	42 是菴日記	종합
70 騷苑	문구, 시구	57 五侯鯖	전고	43 類書纂要	종합
71 駢語雕龍	문구, 고사	58 文宇匯氏	인명, 성씨	44 駢語類鑒	고사
72 詩學事類	고사	59 藝林累百	학습서, 소학		
73 韻學事類	전고	60 十三經類語	문구		

이상과 같이 조사된 「사고전서총목제요」 유서류의 주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요의 경우 크게 고사, 과거준비용, 동식물, 문구, 박물, 시문, 운서, 인명, 일화, 제도, 종합, 학습서의 12종의 주제로 조사되었다. 종합적 유서가 24종으로 가장 많았으며, 문구와 성씨가 각각 8종과 7종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존목의 경우 크게 고사, 과거준비용, 과거합격자, 동물, 문구, 문체, 민속, 부녀서, 소설유서, 시, 역보, 운자, 인명, 인물, 자전, 잠언, 전고, 제도, 제왕, 종합, 책략서, 학습서의 22종의 주제로 조사되었다. 그중 문구와 문체를 같은 종류로 정리하면 총 21종이 조사되었으며, 그중 종합적 유서가 66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문구 38종과 문체 8종으로 46종으로 두 번째로 많았고, 인명과 전고가 각각 19종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종합적으로 제요와 존목 모두 종합적인 유서와 문구류의 유서 및 그 외 인명이나 전고류의 유서가 많이 수록되었으며, 과거학습용의 유서류도 많이 수록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존목의 경우 제요보다 유서의 주제 분야가 다양함을 알 수 있다.

3. 내용의 고찰

「사고전서총목제요」 유서류의 내용의 고찰은 내용설명, 구성과 수록범위, 문헌의 가치 및 기존 문헌의 편집으로 세부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중 기존 문헌의 편집을 제외한 내용의 고찰 경우를 조사 정리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내용의 고찰

	내용의 서명		내용구성과 수록범위		문헌의 가치	
	서명	비고	서명	비고	서명	비고
제요	四六叢珠匯選	- 내용 설명	冊府元龜	- 구성, 전래	錦繡萬花穀	- 일서의 수록
	永嘉八面鋒	- 내용 변화	職官分紀	- 구성과 수록범위	花木鳥獸集類	- 일실 문헌 수록
	書敘指南	- 내용 설명	名疑	- 수록범위	太平御覽	- 일실 문헌 수록
	記纂淵海	- 내용 설명	事文類聚	- 합편의 구성	古今同姓名錄	- 일서
	事文類聚	- 평가	名賢氏族言行類稿	- 수록 범위	同姓名錄	- 일실 기록
	圖書編	- 내용 설명			山堂考索	- 문집의 산일
	璧水群英待問會元選要	- 내용 설명, 서명 설명	標題補注蒙求	- 구성 - 산거 기록	類要	- 전래본 수량
존목	古史彙編	- 내용 설명	記室新書	- 구성	歲華紀麗	- 판본
	宮闈小名錄	- 내용 설명	奇姓通	- 구성		
	名物類考	- 내용 설명, 평가	姬侍類偶	- 저본 - 수록범위		
	正音攬言	- 내용 설명	錦帶補注	- 수록범위 비교		
	黔類	- 내용 설명, 서명 이유	啓筭雲錦裳	- 수록범위 비교		
	杜韓集韻	- 내용 설명	宮闈小名錄	- 수록범위		
	經世篇	- 내용 설명	同姓名錄	- 수록범위		

3.1 내용설명

「사고전서총목제요」유서류 제요와 존목의 내용 설명은 이상의 <표 3>과 같이 주요 내용의 설명, 내용의 고증, 판본의 변화에 따른 내용의 변화로 구분되어 진다 우선 내용설명으로 「記纂淵海」, 「名賢氏族言行類稿」, 「宮闈小名錄」, 「圖書編」, 「何氏類鎔」, 「書敘指南」 등이 있다. 존목의 「名物類考」는 내용설명 외에 「爾雅」의 지류로 고증하고 있으며, 「正音攬言」은 운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운서는 아님을 설명하고 있다.²⁾

둘째, 일부 내용을 고증하고 있는데, 「杜韓集韻」은 송대의 「十二先生詩宗」 성격임을 고증하고, 「類苑瓊英」은 미완임을 설명하고 있다. 「經世篇」은 내용 설명 외에 서적상이 구본의 저자 이름 炎武를 빌려 썼음을 고증하고 있다.³⁾

셋째, 판본이 달라지면서 내용이 변화한 것과 관련하여 「永嘉八面鋒」은 명대에 중각되면서 내용이 달라진 것을 설명하고 있다.⁴⁾

종합적으로 이상과 같은 내용 설명은 제요의 5종 사고본과 존목의 8종의 사고본에서 조사되었다. 대체적으로 주요 내용의 설명과 고증 및 내용의 변화를 고찰하였음을 알 수 있다.

3.2 내용구성과 수록범위

「사고전서총목제요」유서류 제요와 존목의 내용 고찰 중 내용구성과 수록범위를 기술하고 있는 <표 3>과 같다. 우선 내용 구성과 관련하여 「冊府元龜」는 「玉海」에 실리기는 目錄 10卷, 音義 10卷이나 「사고전서」 당시에는 目錄은 있으나 音義는 없는데, 이는 전사가 오래 동안 이루어지면서 일실된 것이라고 고증하고 있다.⁵⁾ 존목의 「標題補注蒙求」는 전래본의 구성과 현행본의 산거 등 정황 설명으로 구성을 고증하고 있으며, 「記室新書」는 내용의 구성을 자세히 고찰하여 서점의 상술을 고증하고 있다.⁶⁾

한편 수록범위의 기술은 제요의 「職官分紀」와 「名疑」 및 「名賢氏族言行類稿」, 존목의 「宮闈小名錄」과 「同姓名錄」에서 보인다. 「事文類聚」는 前集, 後集, 續集, 別集, 新集, 外集, 遺集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前·後·續·別四集은 송 祝穆撰, 「新集」·「外集」은 원 富用撰, 遺集은 원 祝淵

2) 是書詮釋名物, 分十五門. 蓋「爾雅」之支流. ; 是書以等韻分二十二部, 而又非韻書.
3) 舊本題昆山顧炎武撰. … 蓋應科舉者抄撮類書爲之, 而坊賈託名於炎武也.
4) 蓋明人重刻所改也.
5) 據「玉海」所載, 此書凡目錄十卷, 音義十卷. 今有目錄而無音義, 蓋傳寫者久佚之矣.
6) 今所行者凡二本, 一本二卷, 乃子光之原注, 已著於錄. 此本又分三卷, 凡子光注中陳振孫所謂兼及他人事者, 皆爲刪去, … 「書錄解題」·「宋史·藝文志」皆作八卷. ; 「宋史·藝文志」事類門, 載方龜年「群書新語」十一卷. 「福建通志」亦載之, 作十卷. 均無「記室新書」之名. 考世傳抄本「翰苑新書」, 有明沔陽陳文燭序, 謂是宋人書, 抄自秘閣者. 無撰人姓氏, 凡分四集. 其別集十二卷, 即此書之前十二卷. 其前集七十卷, 此書割去前十二卷, 以十三卷以下五十八卷續別集後, 仍足七十卷之數. 蓋坊賈得殘闕「翰苑新書」, 並兩集爲一集, 改此名以售欺也.

撰으로 한편은 建陽의 서점에서 한 원대 마사본임을 고증하고 있다.⁷⁾ 특히 「錦帶補注」와 「啓筭雲錦裳」은 명대 판본과 「永樂大典」본과의 수록범위를 비교 고찰하고 있다.⁸⁾

종합적으로 이상과 같은 내용 구성과 수록범위는 제요의 5종 사고본과 존목의 8종의 사고본에서 조사되었다. 내용 구성과 수록범위의 고찰은 대체로 상세하게 이루어져 있다.

3.3 문헌의 가치

「사고전서총목제요」 유서류는 사고본에 일서나 일실된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 부분을 기술하고 있다. 이상의 <표 3>의 내용 의 설명 중 문헌의 가치와 같이 주로 사고본이 일실되어 전하지 않는 문헌인 경우, 일서를 수록하고 있거나 일실된 내용을 전해주고 있는 가치를 고증하고 있다.

「錦繡萬花穀」은 청 당시 일서였던 「職林」, 「郡閣雅談」, 「雅言系述」, 「雲林異景記」 따위가 실려 있어 가치가 있음을 고증하고 있다.⁹⁾ 특히 「古今同姓名錄」은 「梁書」本紀, 「隋書經籍志」에 기록되고, 당 증광 후 「讀書志」, 「書錄解題」에 소개된 후 일실되었다. 사고본은 「永樂大典」 수록본으로 원 증보본임을 고증하고 있다. 또한 「古今同姓名錄」 1권이 「隋書·經籍志」에 기록되고 당과 원대에 증보되었으나 점차 일실되었다가 그 후 집일하여 「永樂大典」에 실려 궁정에 보관되어 전래본이 없음을 기록하며 사고본 「同姓名錄」의 가치를 평가하고 있다.¹⁰⁾ 송대에 편찬된 「太平御覽」은 이전의 일서를 전하고 있다는 관련 문헌을 고증하고 있다. 「山堂考索」前集은 역사서 상의 문집들은 이미 산일되고 전하지 않는데 이 문헌만이 존재함을 고증하고 있다. 존목의 「歲華紀麗」는 이전 예문지와 경적지 등에 기록되었으나 전하지 않았는데, 사고본으로 수록됨에 그 판본을 고증하고 있다.

한편, 「花木鳥獸集類」는 「三國典略」, 「瑞應圖」, 「字說」 등 일실된 문헌의 수록를 분석하며, 여러 차례 전사되어 온 단점을 평가하고 있다.¹¹⁾ 존목의 「類要」는 전래본이 없고 당시 浙江範氏天一閣의 宋本 抄本도 43권만이 잔존하고 있음을 기술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이상과 같은 문헌의 가치 고찰은 제요의 6종 사고본과 존목의 2종의 사고본에서 조사되었다. 대체적으로 존목 대비 선사 대상 사고본의 제요에서 문헌의 가치가 더 고찰되었으며, 이러한 고찰은 일실되어 전래본이 없는 문헌을 수집 수록하여 「사고전서」의 가치를 더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7) 案此書爲元代麻沙版, 前·後·續·別四集皆宋祝穆撰. 「新集」·「外集」元富大用撰. 遺集元祝淵撰. 其合爲一編, 則不知始自何人, 疑卽建陽書賈所爲也.

8) 其本較明人所刻多前序一篇, 不著撰人名氏. ; 與「啓筭雲錦裳」並載「永樂大典」中, 其體例相同, 其猥鄙亦如出一轍.

9) 特其中久經散佚之書, 如「職林」·「郡閣雅談」·「雅言系述」·「雲林異景記」之類, 頗賴此以存崖略.

10) 是書見於「梁書」本紀及「隋書·經籍志」者皆作一卷. 唐陸善經續而廣之, 故「讀書志」·「書錄解題」皆作三卷, 其本皆不傳. 此本爲「永樂大典」所載, 又元人葉森所增補者也.

11) 中間如「三國典略」·「瑞應圖」·「字說」等書, 久已佚亡, 亦不免輾轉稗販之弊.

3.4 기존 문헌의 편집

「사고전서총목제요」 유서류를 살피기 위하여 기존 문헌을 대상으로 합편, 증광, 요약 등을 하여 새로운 유서로 편집 생산하였음을 고찰하고 있다. 이를 조사 정리하면 다음의 <표 4>와 같다.

<표 4> 기존 문헌의 편집

제요	존목
駢語雕龍, 書敘指南, 六帖補, 古今同姓名錄, 初學記, 禦定韻府拾遺, 別號錄, 小字錄, 姓氏急就篇	藝林累百, 廣事類賦, 三體摭韻, 考古略, 文選雙字類要, 群書纂類, 物原, 修辭指南, 左粹類纂, 騷苑, 文選錦字, 楚騷綺語, 類萬, 對制談經, 藝林累百, 十三經類語, 詩學匯選, 五車韻瑞, 五經總類, 備吹錄首集, 廣韻藻, 韻府續編, 古今事物原始, 古史彙編, 天華山房秘藏玉杵白, 希姓補, 廣群輔錄, 歷朝人物氏族會編, 古今疏, 千家姓文, 姓氏譜, 宮闈小名錄, 同姓名錄, 古事苑, 廣事類賦, 三體摭韻, 文獻通考節貫, 政譜, 駢語類鑿, 玉海纂, 裁纂類函, 歲華紀麗, 類要, 群書備數, 考古辭宗, 記室新書, 奇姓通, 廣蒙求, 秘笈新書

이상의 표와 같이 제요와 존목의 사고본은 기존 문헌을 합편, 재편집, 재구성, 재분류, 증광, 산거, 모방, 요약, 보완 등 편집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편집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러 문헌을 합편하여 새로운 유서를 생산하였음을 고찰하고 있다. 제요의 「駢語雕龍」은 「初學記」와 「事類賦」를 합쳐 새로운 서명으로 명명하였고, 존목의 「韻府續編」은 「大學衍義補」와 「聖學格物通」을 합집 및 재구성한 경우이다. 「書敘指南」은 여러 문헌의 내용을 취하여 편집하여 합본으로 개명한 책이다. 「修辭指南」은 「爾雅」, 「左腴」, 「漢雋」, 「書敘指南」을 취집한 것이며, 「五經總類」는 五經과 「周禮」와 「孝經」의 문구를 분류 배열한 것이다. 「宮闈小名錄」은 당대의 시인 陸龜蒙과 송대 학자 王銍 등의 기록들을 합편한 것이다.

둘째, 기존 문헌을 재편집, 변경 및 보완하여 새로운 유서로 편찬하였음을 고찰하고 있다. 「六帖補」는 白居易의 「六帖」과 孔傳의 「續六帖」의 미비한 것을 보완한 경우이다.

셋째, 기존 문헌을 재구성하여 유서를 생산하였음을 고찰하고 있다. 「藝林累百」은 다른 문헌을 재구성한 경우이며, 「對制談經」은 「禮經會元」의 분류 배열 및 내용에 맞게 재생신하고 서명을 변경한 경우이다.

넷째, 기존 문헌의 일부를 활용하여 재분류 편찬하였음을 고찰하고 있다. 「左粹類纂」은 「左傳」의 일부를, 「詩學匯選」과 「歷朝人物氏族會編」은 「詩學大成」과 「重編百家姓」을 재편집한 것이다. 「廣韻藻」는 「韻藻」의 번잡한 것을 산거하고 미비한 것을 증광한 경우이며, 「五車韻瑞」는 「韻府群玉」의 체계를 변경한 사례이다. 「類雅」는 風雨類 부분은 「蠡海集」을 인용하고, 鳥類 부분은 「埤雅」를 인용하고 발췌하였다.

다섯째, 기존 문헌을 증광하여 편찬된 유서들을 고찰하고 있다. 존목의 「十三經類語」는 「五經類語」의 증광, 분류 및 주 첨가한 것이다. 그 외 「備吹錄首集」은 「謝華啓秀」를, 「同姓名錄」은 명대 「同姓名錄」을, 「廣事類賦」는 「事類賦」를, 「廣蒙求」는 「十七史蒙求」를 증광한 경우이다. 한편 「廣事類賦」

는 「事類賦」가 미비할 것을 염려하여 증광하였으며, 「古今同姓名錄」은 영락대진본 보다 증보되어 있다. 「禦定韻府拾遺」는 「佩文韻府」의 편집 및 증광본이며, 「小字錄」은 「侍兒小名錄」을 증광하고, 「集史傳」의 小字를 하나로 편찬한 경우이다. 존목의 「千家姓文」은 「百家姓」의 증광본이다. 특징적으로 「考古辭宗」은 「修辭指南」이 저본으로 「文選·雙字類要」를 각류 아래에 증과 초록하여 실었음을 고증하고 있으며, 「秘笈新書」는 自序를 통해 송대 말엽 충신 謝枋得의 미발간 원고를 증보 편찬한 것이다.

여섯째, 기존 문헌을 산거 및 정리하였음을 고찰하고 있다. 「玉海纂」은 「玉海」를 보완하고 「詞學指南」 따위를 산거 및 정리한 것이다. 「裁纂類函」의 雜錄 부분은 「冊府元龜」의 글들로 편목을 산거한 경우이다. 존목의 「物原」은 「事物紀原」의 일부를 정정한 것이다.

일곱째, 기존 문헌을 그대로 모방한 유서를 고찰하고 있다. 「類雋」은 「初學記」와 「藝文類聚」를 모방한 것이고, 존목의 「古今疏」는 「廣雅」와 「釋名」을 모방한 것이다.

여덟째, 기존 문헌을 기본으로 다른 문헌을 편집하여 유서를 편찬하였음을 고찰하고 있다. 「考古略」은 文淸이 처음에 「考古源流」에 「三通」, 「玉海」, 「冊府元龜」, 「通鑒綱目」, 「大事紀」, 「學海津逮」, 「性理」를 편집 편찬하고 이후 다시 요약 정리한 것이다.

아홉째, 기존 문헌을 요약 및 발췌하여 유서를 편찬하였음을 고찰하고 있다. 존목의 「文選雙字類要」는 「楚辭」와 「文選」의 일부 요약본이며, 「騷苑」도 기존 문헌의 요약본이다. 한편, 楚騷綺語는 「楚辭」의 발췌본이다. 「古史彙編」은 「文獻通考」를 간략 정리한 것이며, 「姓氏譜」는 「萬姓統譜」의 발췌본이다. 「政譜」는 「通典」, 「文獻通考」, 「大學衍義補」를 발췌 편집한 것이다. 특히 존목의 「天華山房秘藏玉杵白」는 「唐類函」을 발췌 수록하였는데, 이는 명대 서적상의 상술로 분석되고 있다.

열째, 기존 문헌을 보완하여 유서를 편찬하였음을 고찰하고 있다. 존목의 「廣群輔錄」은 「聖賢群輔錄」을 보충한 것이며, 「希姓補」는 「希姓紀錄」의 미비한 것을 보완한 경우이다. 특징적으로 「群書纂類」는 「群書備數」의 빠진 부분을 보충하고 주석을 추가한 것이다.

열한째, 기존 문헌의 체제를 모방하여 유서를 편찬하였음을 고찰하고 있다. 「三體撫韻」 외에 「姓氏急就篇」은 「急就篇」 체제를 모방 편집한 것이다. 존목의 「古今事物原始」는 「事物紀原」을, 「古事苑」은 「事類賦」를 「三體撫韻」은 「韻府」의 체제를 모방한 경우이다. 「文獻通考節貫」은 「文獻通考」와 「續通考」의 편차 등을 모방하였으며, 「駢語類鑿」은 「蒙求」, 「事類賦」의 체제를 모방하였다. 「歲華紀麗」는 「北堂書鈔」와 「六帖」의 체제와 유사하며, 「類要」는 「北堂書鈔」, 「六帖」의 체제를 간략화한 것이다. 특히 「別號錄」은 「讀書敏求記」의 고증을 통해 「自號錄」을 모방 및 증광한 것을 고찰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이상과 같은 내용 고증 중 문헌의 비교 고증은 제요의 9종 사고본과 존목의 50종의 사고본에서 조사되었다. 유서들에서 기존의 문헌들을 대상으로 합편, 휘집, 증광, 재편집, 발췌, 요약, 산거 등의 경우가 고찰되었다. 또한 기존 문헌들의 내용을 합치거나 편집, 증보하고 새로운 서명으로 명명 또는 개명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특히 존목의 경우 많은 사고본이 기존 문헌을 전사, 모방, 요약, 합편 등을 하였음을 기술하고 있다. 즉, 이러한 기존 문헌의 편집 관련 조사를 통해 존목에 실린 이유를 추측할 수 있다.

4. 내용의 분석

「사고전서총목제요」 유서류는 내용의 분석 관련 기술로 서명의 설명, 내용의 평가, 내용의 오류 분석, 저본 분석, 서점과 서적상으로 세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중 서명의 설명 이외의 내용의 분석을 조사 정리하면 다음의 <표 5>와 같다.

<표 5> 내용의 분석

	내용의 평가		내용의 오류 분석		저본의 분석		서적상과 서사본	
	서명	비고	서명	비고	서명	비고	서명	비고
제요	小字錄	- 설명, 평가	事文類聚	- 문제, 오류	實賓錄	- 저본	事文類聚	- 서적상 상술
	事文類聚	- 평가	小名錄	- 기술 분석	全芳備祖	- 저본	古今合璧事類備要	- 망본
	全芳備祖前集	- 평가	歷代制度詳說	- 오자 분석	小學紺珠	- 저본	翰苑新書	- 서적상 상술
	古今同姓名錄	- 평가	名疑	- 고증, 정정			排韻增廣事類氏族大	- 서사본
			天中記	- 기술 분석				
존목	文選錦字	- 평가	涉覽屬比	- 간행년 오류	考古辭宗	- 저본	標題補注蒙求	- 서사본
	類書纂要	- 평가			廣修辭指南	- 저본, 원문	群書備數	- 서사본
	古今事物原始	- 평가			姓氏譜纂	- 저본	經世篇	- 서적상 상술
	韻學淵海	- 평가			事物考	- 저본	標題補注蒙求	- 서사본, 개찬
	天華山房秘藏玉杵白	- 평가			姬侍類偶	- 저본	記室新書	- 서점 상술
	姓氏譜	- 평가					考古略	- 저자 이름
	類苑瓊英	- 설명, 평가						
	十二先生詩宗集韻	- 평가						
	標題補注蒙求	- 평가						
	何氏類錄	- 설명, 평가						

4.1 내용의 평가

「사고전서총목제요」 유서류 제요와 존목의 내용 분석 중 내용의 평가는 이상의 <표 5>와 같으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요의 「事文類聚」는 원대 마사본으로 고증하면서 내용 중 新集·外集·遺集은 모두 기술함에 문제가 있고, 門類가 미치지 못하는 등 원문에 미치지 못함을 평가하고 있다. 「全芳備祖」의 경우 '서'에 의하면 조정에 진헌이 된 것으로 보이나 실제 그렇지 않음을 고증하고 있다.¹²⁾ 「古今同姓名錄」은 「梁書」本紀, 「隋書·經籍志」에 보이고, 당 증광 후 「讀書志」, 「書錄解題」에 소개되었으나 전하지 않다가 이는 「永樂大典」 수록본으로 원 증보본임을 고증하고 있다.

한편, 존목의 「文選錦字」는 기존 문헌 「類林眉山」과 「文選雙字類要」를 증광하고 있으나, 미사여

12) 是書前有寶祐元年韓境序。據序所言，此書於理宗時嘗進於朝，其事亦無可考。

구를 늘어놓은 가치 없는 문헌이라 평가하고 있으며,¹³⁾ 『類書纂要』는 유서를 그냥 베긴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편, 서사본 등의 일례로 『標題補注蒙求』는 서점이 개찬한 것으로 취하기 부족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古今事物原始』는 『事物紀原』의 체계를 모방했으나 미흡하고 『天華山房秘藏玉杵白』와 『姓氏譜』는 각각 『唐類函』과 『萬姓統譜』를 발췌 수록하였으나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類苑瓊英』과 『十二先生詩宗集韻』 또한 내용이 미비하며, 『標題補注蒙求』는 坊刻의 개찬본으로 취하기 좋지 않음을 평가하고 있다.¹⁴⁾ 특징적으로 『韻學淵海』는 『韻學事類』와 『詩學事類』의 합집으로 심각한 위서로 평가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이상과 같은 내용 분석 중 내용의 평가는 제요의 4종 사고본과 존목의 10종의 사고본에서 조사되었다. 내용 평가의 주요 내용은 사고본으로 수록하기에 내용이 미비하거나 그냥 발췌, 전사 또는 체제의 모방 등의 부적합한 평가가 많이 보이며, 이러한 내용 평가는 제요 대비 존목에서 많이 조사되었다. 즉, 이를 통해 존목에 실리게 된 이유의 단면을 살펴볼 수 있다.

4.2 내용의 오류 분석

『사고전서총목제요』 유서류 제요와 존목의 내용 분석 중 오류 분석은 <표 5>와 같으며, 내용 기술의 분석, 문헌 완성년 기록의 오류 분석, 오자나 이름의 오류 분석 및 간행년 기록의 오류 등을 분석하고 있다.

『小名錄』과 『天中記』는 기술된 내용을 분석하였으며, 『事文類聚』 내용 기술의 문제와 오류와 관련하여 제도연혁의 시대는 맞으나 사람의 자 등의 오류를 분석하였다. 『歷代制度詳說』은 간본 일실 후 전사 등으로 오류와 탈락을 기술하며, 『通考』에 의거 보충, 오자를 분석하고 있다.¹⁵⁾ 『名疑』는 이름의 오류, 존목의 『涉覽屬比』는 문헌 완성년 기록의 오류를 분석하고 있다.¹⁶⁾

즉, 이상과 같은 내용 분석 중 오류의 분석은 제요의 5종 사고본과 존목의 1종의 사고본에서 조사되었다. 이를 통해 선사되어 제요에 실린 사고본의 경우 수록 대상 문헌의 내용의 오류 분석이라는 질적 평가에 무게를 더 신고 있음을 볼 수 있다.

4.3 저본의 분석

이상의 <표 5>와 같이 『사고전서총목제요』 유서류 제요와 존목의 저본 분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3) 自謂合清江劉氏『類林眉山』·蘇氏『雙字類要』而增損之。然二家之書已涉餽飭，疊床架屋，尤爲無謂矣。

14) 蓋坊刻改竄之本，不足取也。

15) 刊本久佚。此本輾轉傳寫，又多訛闕。其錢幣門中脫二頁，荒政門中脫二頁，今悉據『通考』所引補足。中間誤字，亦考核校正。

16) 未有自跋，稱書成於正德乙巳，然正德紀年無乙巳，或己巳誤也。

첫째, 저본을 고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實賓錄」 사고본은 '範氏天一閣藏本'으로 「說郛」와 같으며, 영락대전본이 수집한 「實賓錄」의 600항목은 「說郛」에는 실리지 않은 것임을 고증하고 있다.¹⁷⁾ 또한 「書錄解題」에서 통칭하는 「實賓錄」은 송대 전래된 구분임을 기술하고 있다. 존목의 「姓氏譜纂」은 성씨 배열의 저본 「百家新箋」을 밝히고 있다.

둘째, 저본을 밝히고 있다. 「小學紺珠」는 「群書拾唾」와 「讀書紀數略」이 저본임을 기술하고 있다. 존목의 「考古辭宗」, 또한 「修辭指南」이 저본임을 밝히고 있다. 한편, 「全芳備祖」는 「群芳譜」의 저본임을 밝히고 있다.¹⁸⁾

셋째, 저본의 편집 수락을 고찰하고 있다. 「廣修辭指南」은 저본 「修辭指南」 원문이 앞부분에 수록되어 있음을 기술하고 있다. 「事物考」는 「事物紀原」을 저본으로 그 외 명대의 지명, 관제 등을 증광하였고, 「姬侍類偶」는 저본 「太平廣記」의 일부를 신지 않았음을 고증하였다.¹⁹⁾

즉, 이상과 같은 내용 분석 중 저본의 분석은 제요의 3종 사고본과 존목의 5종의 사고본에서 조사되었다. 이를 통해 「사고전서총목제요」 유서류는 내용 기술에 직접적인 저본을 찾아 기술하거나 사고본의 편집 등을 고증 있어 해제의 전문성을 높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4 서적상과 서사본의 고찰

「사고전서총목제요」 유서류 제요와 존목의 내용 분석 중 서적상과 서사본의 고찰은 <표 5>와 같다. 이를 문헌의 함편, 저자명의 오용, 새로운 서명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사본임을 고증하고 있다. 「古今合璧事類備要」, 「排韻增廣事類氏族大全」, 존목의 「標題補注蒙求」, 「群書備數」, 「經世篇」, 「標題補注蒙求」가 그렇다. 「古今合璧事類備要」에는 維新의 自序가 있으며, 자서의 기록을 통하여 維新이 친구 劉德亨의 부탁으로 간행된 민간서사본(坊本)²⁰⁾임을 고증하고 있다. 「排韻增廣事類氏族大全」은 建陽 麻沙所刊으로 書肆本임을 고증하고 있다. 「記室新書」는 서점상의 상술로 구성된 것임을 기술하고 있다.

둘째, 저자 이름을 빌려 쓴 것을 고증하고 있다. 「經世篇」은 서적상이 구본의 저자 이름 炎武를 빌렸음을 고증하고 있다.²¹⁾ 또한 「翰苑新書」의 다른 판본으로 송의 謝枋得이 찬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으나 이는 상인(坊賈)이 가짜로 한 것임을 고증하고 있다. 文淸의 「考古略」은 범례에 저술관련 내용을 기술하고 있으나 사고본은 아니며 서점가에서 저자 이름을 빌려 쓴 것임을 고증하고 있다.

셋째, 함집이 원문에 미치지 못함으로 고찰하고 있다. 「事文類聚」 前集, 後集, 續集, 別集, 新集,

17) 近浙江所進範氏天一閣藏本, 亦即從「說郛」鈔出, 一字不殊. … 今從「永樂大典」蒐輯, 共得六百餘條, 皆「說郛」之所未載. 仍從「書錄解題」統標曰「實賓錄」, 以存宋時傳本之舊.

18) 備祖前集明王象晉「群芳譜」即以是書爲藍本也.

19) 其文屬對既拙, 又多漏略, 大抵以「太平廣記」爲稿本, 而「廣記」中春條·金釭之類, 乃遺不載.

20) 또는 坊刻本으로 민간 서점에서 출판한 서적의 판본을 이른다. 송대의 建陽과 麻沙의 책방, 남송의 臨安 책방 등을 이른다.

21) 舊本題昆山顧炎武撰. … 蓋應科舉者抄撮類書爲之, 而坊賈託名於炎武也.

外集, 遺集으로 합집 구성한 것으로 前·後·續·別四集은 송 祝穆 찬, 新集과 外集은 원 富大用 찬, 遺集은 원 祝淵 찬으로 합집은 建陽 書賈所에서 한 원대마사본으로 고증하고 있다. 일부 원문에 미치지 못함을 평가하고 있다.

넷째, 서명 변경을 고증하고 있다. 『群書備數』는 『群書拾唾』와 동일함을 고증, 서점의 중간본으로 새로운 서명으로 변경한 것은 현혹시키기 위함을 고증하고 있다.²²⁾ 『記室新書』 또한 원 문헌 『群書新語』와 『翰苑新書』를 고찰하여 서점의 상술을 고증하고 있다.

다섯째, 기존의 문헌 개찬을 고증하고 있다. 『標題補注蒙求』는 坊刻의 개찬본으로 사고본으로 취하기 족하지 않음을 평가하고 있다.²³⁾

종합적으로 내용 분석 중 서적상 및 서사본의 고찰은 제요의 4종 사고본과 존목의 6종의 사고본에서 조사되었다. 특히 서점 및 서적상의 문헌은 주로 상술적 목적으로 합편, 저자 오용 등을 하였음을 고증하고, 체제나 변경이 완전하지 못하거나 원문에 미치지 못하는 등의 평가가 이루어졌다. 이는 존목에서 많이 찾아지나 일부 제요에 실린 문헌도 있음을 발견하였다.

4.5 서명의 설명

『사고전서총목제요』 유서류 제요와 존목은 서명 관련 설명을 하고 있으며, 이를 조사 정리하면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서명의 설명

제요		존목	
서명	비고	서명	비고
四六叢珠匯選	- 서명 배경	璧水群英待問會元選要	- 서명 배경
駢語雕龍	- 서명 배경: 두 문헌의 합본	文選錦字	- 서명 이유
太平御覽	- 서명 설명	朱翼	- 서명 이유
龍筋鳳髓判	- 서명 설명	藝林累百	- 서명 이유: 문헌의 재구성
書敘指南	- 서명 이유	廣事類賦	- 서명 이유: 증광
北堂書鈔	- 서명 설명	三體摭韻	- 서명 배경: 체제 모방
太平御覽	- 서명 배경	考古略	- 서명 이유
實賓錄	- 서명의 변화	文選雙字類要	- 서명 이유
書敘指南	- 내용 설명	群書備數	- 서명 변경
海錄碎事	- 서명의 배경	對制談經	- 서명 개명
玉海	- 서명 변경	藝林累百	- 서명 이유
天中記	- 서명 배경	三體摭韻	- 서명 이유
圖書編	- 서명의 변화 고증	政譜	- 서명 이유
禦定韻府拾遺	- 서명 이유	廣修辭指南	- 서명 이유

22) 檢核其文, 與『群書拾唾』一字不異, 蓋書肆重刊, 改新名以炫俗也.

23) 蓋坊刻改竄之本, 不足取也.

이상과 같이 서명과 관련하여 서명 설명, 서명 배경 설명, 서명의 고증, 합본과 편집에 따른 서명 고증 등이 조사되었다. 먼저 서명에 대한 설명의 경우 제요의 「北堂書鈔」는 劉禹錫 「嘉話錄」을 인용하여 서명을 설명하고, 「海錄碎事」는 「閩書」를 인용하여 서명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둘째, 「太平御覽」은 서명 하사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으며, 「書敘指南」과 「天中記」는 서명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玉海」는 기존 문헌을 모방하면서 서명을 변경한 사례이다. 한편 존목의 「璧水群英待問會元選要」, 「朱翼」, 「三體摭韻」, 「政譜」 또한 서명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文選錦字」는 서명에 문선이 들어간 이유를 설명하고, 「廣事類賦」는 「事類賦」를 증광하였기에 ‘증’을 붙여 명명하였음을 설명하였다. 「三體摭韻」은 서명에 ‘三體’와 ‘摭韻’을 쓴 이유를 설명하고, 「禦定韻府拾遺」는 「佩文韻府」의 편집과 증광 및 拾遺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古史彙編」은 「文獻通考」를 모방 및 간략화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廣修辭指南」은 「修辭指南」을 저본으로 원문을 앞에 싣고 증광하면서 ‘증’을 붙였음을 고찰하고 있다.

셋째, 합본, 편집에 따른 서명임을 고증하고 있는 경우로 「駢語雕龍」은 두문헌의 내용을 합쳐 하나로 새로운 서명으로 명명하였음을 고증하고 있고, 「書敘指南」은 여러 문헌의 내용을 취하여 편집하여 합본으로 개명한 책임을 설명하고 있다. 「考古略」은 文淸이 처음에 「考古源流」, 「三通」, 「玉海」, 「冊府元龜」, 「通鑒綱目」, 「大事紀」, 「學海津逮」, 「性理」를 편집 편찬하고 이후 다시 요약 정리하였기에 기존 문헌 서명의 ‘源流’를 ‘略’으로 하였음을 설명하고 있다. 「對制談經」은 「禮經會元」을 재분류 배열하고 서명을 변경하였으며, 「藝林累百」은 「小學紺珠」의 체제를 변경 및 표제화하면서 서명을 변경하였음을 고찰하고 있다. 「實賓錄」과 「圖書編」은 서명의 변화를 고증하고 있으며, 전자의 경우 송사에문지의 오류 또한 고증하고 있다.

넷째, 서명과 관련하여 「四六叢珠匯選」의 경우 서를 통해 송대의 십씨가 명가의 휘집을 모아 「四六叢珠」로 서명을 명명하였음을 고찰하여 사고본이 이를 선별 편집한 문헌임을 고증하고 있다. 존목의 「璧水群英待問會元選要」 또한 내용 설명 외에 서명의 배경을 고증하고 있다. 「黔類」는 貴州의 巡撫일 때 편집한 것으로 전례서이지 지방지인 「黔志」는 아님을 설명하고 있다.²⁴⁾

종합적으로 이상과 같은 서명의 설명은 제요의 14종 사고본과 존목의 15종의 사고본에서 조사되었으며, 내용 기술 중 가장 많이 조사된 항목이다. 이는 서명에 대한 설명이나 명명된 배경, 서명 관련 고증 등을 기술하고 있으며, 특히 문헌 인용을 통하여 서명을 설명하거나 배경을 고찰하고 서명의 배경이나 이유로 내용과 구성, 편집 등을 고찰하고 있다. 또한 서명 설명은 「사고전서총목제요」의 다양한 주제분야 중 유서류의 문헌이기에 내용 기술의 하나의 특징으로 분석된다.

24) 貴州는 중국 서남부에 있는 성으로 간칭이 ‘黔’이다.

5. 내용의 고증

『사고전서총목제요』 유서류는 내용의 고증 관련 기술로 정사와 사지목록의 기록 인용을 통한 고증, 국가 및 사가목록의 기록 인용을 통한 고증, 문헌의 비교를 통한 고증으로 세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5.1 정사와 사지목록의 인용 고증

『사고전서총목제요』 유서류 제요와 존목의 내용 고증 중 정사와 사지목록의 기록 인용을 통한 사고본의 고증을 조사 정리하면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정사와 사지목록 기록의 인용

	서명	내용	비고		서명	내용	비고
제요	古今同姓名錄	- 梁書本紀, 隋書·經籍志	- 사고본 기술, 권수기록	제요	古今姓氏書辨證	- 宋史·隱逸傳 - 宋·藝文志	- 저자 - 권수고증
	編珠	- 隋志, 唐志, 『宋志』	- 기록무 고증		職官分紀	- 宋史·本傳	- 저자
	藝文類聚	- 唐書·藝文志 - 唐書本傳 - 唐書詢本傳	- 저자 - 저자 사적 - 저자		永嘉八面鋒	- 宋史·傅良本傳	- 기록무 고증
	北堂書鈔	- 唐書·本傳-唐志 - 宋史·藝文志	- 저자사적 - 권수사항		雞肋	- 宋史·宗室世系表	- 저자
	龍筋鳳髓判	- 唐書	- 저자 사적		山堂考索	- 宋史·儒林傳	- 저자 사적
	初學記	- 唐書·藝文志	- 기록		經濟類編	- 明史本傳	- 저자 사적
	존목	元和姓纂	- 唐書 - 藝文志	- 저자기록무 - 저자기록	說略	- 明史·藝文志 - 明史	- 권수고증 - 분류고증
		白孔六帖	- 唐志 - 唐書·本傳	- 서명 별명 기록 - 저자 기록	事文玉屑	- 明史·藝文志	- 기록 고증
		小名錄	- 唐·藝文志-漢書	- 권수 차이 - 아명 고증	儒函數類	- 明史·藝文志	- 서명 오류
		蒙求集注	- 五代史·桑維翰傳 - 史記 - 南史	- 저자 기록 - 내용의 고증 - 내용의 고증	十三經類語	- 明史·文苑傳	- 저자명
		事類賦	- 宋史·文苑傳	- 저자 사적	宮闈小名錄	- 明史·藝文志 - 三國志	- 저자 기록 - 내용고증
		實賓錄	- 宋史·藝文志 - 『宋志』	- 저자 기록 - 異號錄과 분리, 증광 이전의 서명고증	事物紀原	- 三國志注	- 내용 고증
海錄碎事	- 宋史·藝文志	- 권수 고증					

이상과 같이 조사된 인용된 정사의 종류를 살펴보면, 『史記』, 『漢書』, 『三國志』, 『五代史』, 『南史』, 『梁書』, 『唐書』, 『宋史』, 『明史』의 9종의 정사가 조사되었다. 사지목록은 『隋書經籍志』, 『唐書藝文

志」,²⁵⁾ 「宋史藝文志」, 「明史藝文志」의 4종이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정사와 사지목록 기록의 인용을 통한 사고본에 대한 기록은 저자와 저자 사적의 기록, 사고본에 대한 기록, 전래본, 권수사항, 내용과 서명의 고증 등이 이루어졌음이 조사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자에 대한 정사 등을 인용한 고증은 「北堂書鈔」, 「古今同姓名錄」, 「實賓錄」, 「古今姓氏書辨證」, 「雞肋」, 존목의 「宮闈小名錄」과 「宮闈小名錄」에서 이루어졌으며, 저자 사적에 대한 정사와 경적지 또는 예문지를 인용한 고증은 「龍筋鳳髓判」, 「事類賦」, 「職官分紀」, 「山堂考索」, 「經濟類編」에서 이루어졌다. 특히 「藝文類聚」는 저자와 저자의 사적 기록이 모두 고증되어 있으며, 「元和姓纂」은 「唐書」에 저자기록이 없으나 「唐書藝文志」에 사적 기록이 있음을 고증하고 있다.

둘째, 사고본에 대한 정사 등의 인용 고증은 「古今同姓名錄」, 「初學記」, 「永嘉八面鋒」, 존목의 「事文玉屑」 등에서 이루어졌다. 특히 「永嘉八面鋒」은 「宋史」 傅良本傳에 「詩解詁」와 「周禮說」 및 「春秋傳左氏章指」를 기록하고 있으나 사고본은 기록하고 있지 않다고 고증하고 있다.

셋째, 전래본에 대한 정사 등의 인용 고증은 특히 「編珠」에서 이루어졌다. 이는 「隋志」, 「唐志」에는 기록이 없고, 「宋志」부터 기록이 보이나 전래본은 전하지 않음을 고증하고 있다.

넷째, 권수사항 관련 정사 등에서의 인용 고증 기술은 「北堂書鈔」, 「海錄碎事」, 「古今姓氏書辨證」, 「說略」에 대하여 이루어졌다. 그중 「北堂書鈔」 사고본의 권수는 160권으로 이와 관련하여 「唐志」의 173권 기록은 晁公武의 「讀書志」가 원인이고, 「中興書目」의 160권 기록은 「宋史藝文志」가 원인이라고 권수사항의 다름과 그 배경을 고증하고 있다. 「海錄碎事」는 「宋史藝文志」는 23권, 「文獻通考」는 33권으로 기록하고 있음을 고증하고 있다. 「古今姓氏書辨證」은 권수사항과 관련하여 「文獻通考」와 「宋史藝文志」는 40권, 「宋會要」는 14권, 「中興書目」은 12권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전사의 오류라고 고찰하고 있다. 또한 「說略」의 경우 권수가 30권인데 「명지」는 60권으로 기록하고 있음에 고증 결과 「명지」의 오류임을 고증하고 있다.

다섯째, 사고본의 서명과 관련하여 정사와 사지목록에서의 고증은 별명과 서명의 고증 방면으로 이루어졌다. 우선 「白孔六帖」의 별명은 「唐書藝文志」를 인용하여 「白氏經史事類六帖」임을 고증하고 있다. 서명의 고증의 예로 「實賓錄」은 증광된 「異號錄」과 함께 엮여진 것인데, 「宋史藝文志」는 「異號錄」과 분리하여 각각의 권수사항 기록하였고, 「宋史藝文志」는 증광 이전의 「異號錄」으로 기술하고 있음을 고증하고 있다. 존목의 儒函數類에 대하여 「명사예문지」에서 이를 「儒數類函」으로 오기하고 있음을 고증하고 있다.

여섯째, 사고본의 내용과 관련하여 「蒙求集注」, 「說略」, 존목의 「宮闈小名錄」, 「事物紀原」에 대하여 이루어졌다. 「蒙求集注」는 「史記」를 통해 「燕昭築台」를 고증하고, 「南史」를 인용하여 「江革

25) 제요 중 「元和姓纂」에서 인용된 「藝文志」는 「新唐書藝文志」로 보인다. 다만 「사고전서총목제요」는 「新唐書」와 「舊唐書」를 구분하고 있지 않고, 사고본 「藝文類聚」 설명에서도 「唐書·藝文志」와 같이 기술하고 있기에 「唐書藝文志」로 표기하였다.

忠孝' 기록을 고증하고 있다. 「說略」의 경우 曾慥의 「類說」과 陶宗儀의 「說郛」가 매우 유사하여 「명사」는 이를 소설가로 분류한 것은 오류임을 고증하고 있다. 한편, 내용분류 오류의 예로 「說略」의 경우 「명지」의 권수 오류와 「명지」의 소설가류로 분류 오류를 고증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이상과 같은 내용 고증 중 정사와 사지목록 기록의 인용을 통한 고증은 제요의 20종 사고본과 존목의 5종의 사고본에서 조사되었다. 즉, 「사고전서총목제요」는 저자와 저자 사적, 서명, 내용, 권수사항 등을 고증하기 위하여 정사와 경적지 또는 예문지를 인용하여 사고본을 고증하고 있음을 분석하였고, 특히 이러한 경우는 제요에서 많이 조사되었다. 이를 통해 제요에 실린 사고본의 문헌의 가치와 질적 평가를 위해 정사 등 공식적인 기록을 인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5.2 국가와 사가목록의 인용 고증

「사고전서총목제요」 유서류 국가와 사가목록의 기록을 통한 사고본의 고증은 제요에서만 찾아진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 8>과 같다.

<표 8> 국가와 사가목록의 기록

서명	내용	비고	서명	내용	비고
古今同姓名錄	- 讀書志 - 書錄解題	- 권수 - 권수	事物紀原	- 書錄解題: 中興書目	- 저자, 권수
北堂書鈔	- 讀書志	- 권수 오류 고증	實賓錄	- 讀書志: 異號錄 - 書錄解題: 實賓錄	- 서명 - 저자, 권수, 전래본
初學記	- 讀書志	- 권수	書敘指南	- 遂初堂書目 - 書錄解題	- 서명 기록 - 저자
元和姓纂	- 國史經籍志 - 書錄解題 - 永樂大典	- 저자 오류 고증 - 전래본 - 전래본	職官分紀	- 書錄解題	- 서명 기록
白孔六帖	- 讀書志	- 원본 관련 기록	錦繡萬花穀	- 書錄解題 - 千頃堂書目	- 권수, 구성 고증 - 권수, 구성 고증
小名錄	- 郡齋讀書後志	- 권수 차이 고증	群書會元截江網	- 千頃堂書目	- 저자 기록 고증
蒙求集注	- 書錄解題	- 저자	韻府群玉	- 千頃堂書目	- 저자 기록

이상과 같이 조사된 인용된 목록류의 종류를 살펴보면, 「千頃堂書目」, 「北堂書鈔」, 「遂初堂書目」, 「書錄解題」, 「通志堂經解」, 「郡齋讀書志」, 「郡齋讀書後志」, 「升庵書目」, 「永樂大典」의 9종이 조사되었다. 그 외 이상의 정사와 사지목록의 기록 인용을 통한 고증과 관련하여 「讀書志」, 「文獻通考」, 「宋會要」, 「中興書目」, 「崇文總目」, 「永樂大典」이 인용되었다(<표 7> 참조).

국가와 사가목록의 기록을 인용한 사고본의 고증은 저자, 사고본에 대한 기록, 원본, 전래본, 권수

사항, 서명의 고증 등이 이루어졌음이 조사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목록류를 인용하여 저자 관련 기록이 조사된 것은 「元和姓纂」, 「蒙求集注」, 「事物紀原」, 「實賓錄」, 「書敘指南」, 「群書會元截江網」, 「韻府群玉」에서 보인다. 특히 「元和姓纂」에 대하여 「國史經籍志」의 저자 기록 오류를 고증하고 있으며, 「蒙求集注」는 찬자명과 관련하여 「書錄解題」에서 「補注蒙求」는 徐子光 撰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事物紀原」의 경우 「書錄解題」에서 「中興書目」을 재인용하여 저자를 고증하고 있다. 「書敘指南」에 대하여 「遂初堂書目」은 서명 기록 외에 다른 기록이 없으나 「書錄解題」는 저자관련 기록이 있음을 고증하고 있다. 「群書會元截江網」의 경우 권수부분에 1347년(至正 7)의 東陽 胡助의 序가 있는데, 「千頃堂書目」은 助의 撰으로 기록하고 있으니 이는 오해라고 고증하고 있다.

둘째, 「白孔六帖」에 대하여 「讀書志」는 원본 관련 기록을 하고 있다.

셋째, 서명 관련 기록이 조사된 것은 「實賓錄」, 「書敘指南」, 「職官分紀」 등이다. 「實賓錄」의 경우 서명과 권수에 대하여 「讀書志」는 「異號錄」 20卷이라 기록하고 「書錄解題」는 「實賓錄」 永易 撰, 句龍材 校正, 文彪 增廣 외에 本書 30卷, 後集 30卷, 송대의 전래본임을 고증하고 있다.

넷째, 권수 차이를 기록 또는 고증한 것은 「古今同姓名錄」, 「北堂書鈔」, 「初學記」, 「小名錄」, 「事物紀原」, 「實賓錄」, 「錦繡萬花穀」 등이다. 「北堂書鈔」는 권수는 「唐書藝文志」에 173권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晁公武의 「郡齋讀書志」의 기록 때문으로 오류를 고증하고 있다. 「小名錄」은 「郡齋讀書後志」는 3권이라 기록하고 있는데, 사고본은 2권임을 기술하고 있다. 「事物紀原」의 경우 「書錄解題」에서 「中興書目」을 재인용하여 이상의 저자 외에 권수 또한 고증하고 있다. 「錦繡萬花穀」의 경우 사고본은 前集·後集·續集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대해 「書錄解題」는 40권, 續 40권이며 後集은 없다고 기록하고 있는 반면, 「千頃堂書目」은 則前集·後集·續集 외에 別集 30권이 있다는 기록을 통해 목록류 기록과의 차이를 고증하고 있다.

다섯째, 전래본 관련 기록이 보이는 것은 「元和姓纂」이다. 특히 「元和姓纂」의 전래본과 관련하여 「書錄解題」에서 선본이 거의 전하지 않아 일부만 전래된다는 기록과 「永樂大典」의 기록에서는 여기저기 흩어져 수록되었고 당시 제1책은 이미 실전된 것으로 고증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이상과 같은 내용 고증 중 국가와 사가목록 기록의 인용을 통한 고증은 제요에서만 조사되었다. 즉, 「사고전서총목제요」는 저자, 서명, 원본, 내용, 권수와 권책 등 구성 관련 기록의 차이, 전래본 등을 고증하기 위하여 기존의 목록류를 인용하여 사고본을 고증하고 있음을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경우는 모두 제요에서 찾아졌다. 이를 통해 정사와 예문지 또는 경적지 기록의 인용을 통한 고증과 마찬가지로 제요에 실린 사고본의 문헌의 가치와 질적 평가를 위해 기간의 목록류의 인용을 통하였음을 알 수 있다.

5.3 문헌의 비교 고증

「사고전서총목제요」 유서류 제요와 존목의 내용 고증 중 문헌의 비교 고증의 경우를 조사 정리하면, 다음 <표 9>와 같다.

<표 9> 문헌의 비교 고증

	서명	비고		서명	비고
제요	事書類聚	- 사고본과 원본의 비교 - 판본과 찬자 고증	존목	宋稗類鈔	- 내용설명 - 유사문헌 기술
	山堂考索	- 유사 문헌과의 비교 - 송대 이전 문헌 고찰		經濟類編	- 유사문헌과 내용, 체제 비교
	純正蒙求	- 다른 문헌과의 비교		考古原始	- 내용과 서명의 고증
	說略	- 권수 고증: 명사 잘못 - 유사문헌 비교		韻府續編	- 유사문헌과의 체제 비교

이상의 표와 같이 제요와 존목의 사고본은 문헌들과의 비교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원본과의 비교 및 이전 문헌과 유사문헌과의 비교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첫째, 「事書類聚」는 사고본과 원본을 비교하여 사고본이 원본에 미치지 못함을 분석하고 있다.

둘째, 「山堂考索」은 「玉海」, 「黃氏日鈔」 등과의 비교 외에 「太平御覽」, 「冊府元龜」와의 비교를 하고 있다. 특히 「太平御覽」, 「冊府元龜」보다 못하나 「宋史」보다 조리 있으며, 송대 이전 문헌 고찰 결과 당시에는 없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²⁶⁾ 「純正蒙求」는 朱子の 「小學·外篇」과 비교, 「說略」은 「說郛」와 유사한 것으로 평하고 있다. 「經濟類編」은 「冊府元龜」와 내용과 체제를 비교하고 있다. 「宋稗類鈔」는 「事實類苑」과 유사한 종류로 기술하고 있다.

셋째, 유사문헌과의 비교의 경우 존목의 「考古原始」는 기존 문헌 趙鈇의 「古今原始」에서 저자 文清이 일부를 삭제, 보정하였으나 일실되어 전래본이 없음을 고증하고 있다.²⁷⁾ 「韻府續編」은 안어의 기록을 통해 「韻府群玉」과 체제가 조금 다르며 이는 서명이 「운부속편」인 이유임을 시사하고 있다.²⁸⁾

종합적으로 이상과 같은 내용 고증 중 문헌의 비교 고증은 제요의 6종 사고본과 존목의 2종의 사고본에서 조사되었다. 원본과 이전 문헌 및 유사문헌 등의 비교 고증 또한 제요 사고본에서 많이 찾아졌다.

26) 雖不及「太平御覽」·「冊府元龜」諸書皆根柢古籍，原原本本，而所采究皆宋以前書，多今日所未見。宋代遺事佚詩，如蘇軾詠雪詩，以富貴勢力分四首，爲本集所不錄者，亦往往見於此書，故厲鶚作「宋詩紀事」多採用之。又宋代官制至爲冗雜，「宋史」不過僅存其名，當時詩文所稱，今多有不知爲何官者。惟此書後集，條列最明，尤可以資考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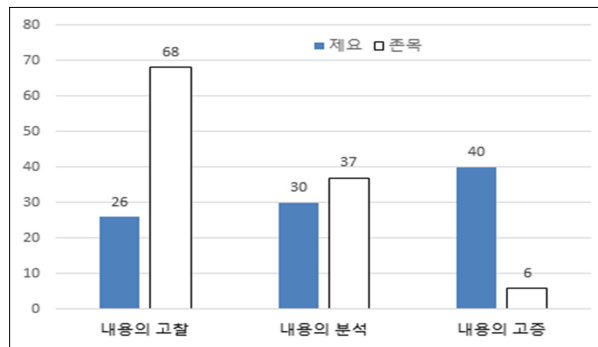
27) 初，明嘉靖中，桐城趙鈇撰「古今原始」十四卷，以歷代帝王編年紀載，各著其事所自始。…文清以趙書原本自天氏至陰康氏荒渺無稽，爲之刊削，依聖經斷自伏羲，並補正訛闕，訖明神宗而止。考世本多載事始，其書久佚，馮贄事始亦無傳本。…文清嘗纂「考古略」一書，其凡例中自敘生平所著述，不及是書，殆坊賈所託名也。

28) 惟間附考證案語，與「韻府群玉」體例小有不同。

6. 종합분석

이상으로 제요 65종과 존목 217종의 총 282종의 「사고전서총목제요」 유서류를 대상으로 주제, 내용의 고찰, 내용의 분석, 내용의 고증의 네 개의 대분류 이하 열 두 개의 세분류로 구분하여 내용기술을 조사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각 조사 항목별 분석, 유서류의 주제와 정사와 사지목록의 인용 고증 및 국가와 사가목록의 인용 고증 등 특징적인 부분을 수치적으로 종합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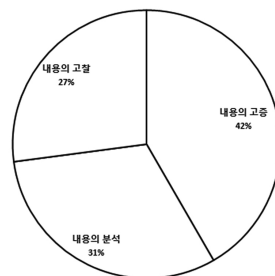
첫째, 전체 항목은 유서류의 주제, 내용의 고찰, 내용의 분석, 내용의 고증의 네 가지로 대분류하여 조사하였다. 전체 조사 대상이 된 유서류는 제요 95종, 존목 110종, 총 205종으로 다음 <그림 1>, <그림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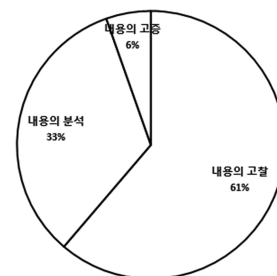
<그림 1> 대분류 조사항목별 증수



<그림 2> 대분류 조사항목별 비율



<그림 3> 제요의 대분류 조사항목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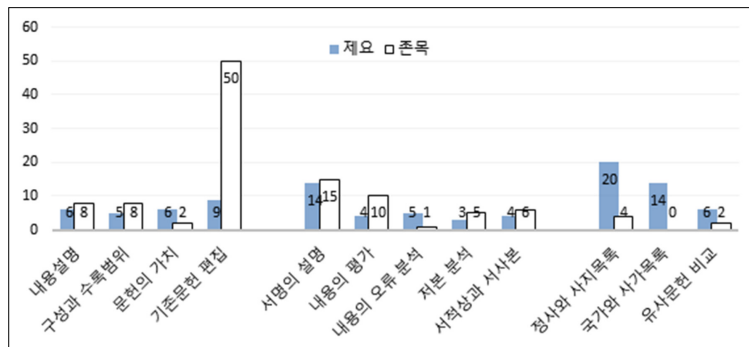


<그림 4> 존목의 대분류 조사항목별 비율

전체 대분류 조사항목 중 내용의 고찰이 94종(46%)으로 가장 많았으며, 내용의 분석이 67종(32%)임을 알 수 있었다. 제요의 경우 내용의 고증 40종(40%), 내용의 분석 30종(31%)의 순으로 많았으며, 존목의 경우 내용의 고찰 68종(61%), 내용의 분석 37종(33%)의 순으로 많았다(<그림 3>, <그림 4> 참조). 전체적인 대분류 조사항목 중 내용의 고찰이 많이 이루어졌으며, 제요는 사고본 수록대상

문헌의 내용 고증분석이라는 질적 기술이 많이 이루어졌다. 반면, 존목은 내용의 고찰 중 기존 문헌의 편집이 많이 조사되었으며, 이를 통해 단순한 기존 문헌의 합집, 요약, 발췌 등으로 이루어진 문헌은 존목의 대상이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유서류의 주제외의 세 개의 대분류는 내용의 고찰(내용설명, 구성과 수록범위, 문헌의 가치, 기존 문헌 편집), 내용의 분석(서명이 설명, 내용의 평가, 내용이 오류분석, 저본 분석, 서적상과 서사본), 내용의 고증(정사와 사지목록의 인용, 국가와 사가목록의 인용, 문헌의 비교)의 열두 가지로 세분류하여 조사하였다. <그림 5>, <그림 6>과 같이 전체적으로 기존 문헌의 편집이 59종(28%)으로 가장 많으며, 서명의 설명이 29종(14%)이며, 정사와 사지목록의 인용 고증이 24종(11%)이 다음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제요의 경우 정사와 사지목록의 인용 고증이 20종(21%), 서명의 설명과 국가와 사가목록의 인용 고증이 각각 14종(15%)의 순으로 많았으며, 존목은 기존 문헌의 편집 50종(45%), 서명의 설명 15종(14%), 내용의 평가 10종(9%)의 순으로 많았다(<그림 7>, <그림 8> 참조). 전체 세분류 조사항목을 통해 제요는 사고본 수록대상 문헌의 내용 고증과 서명 설명이라는 질적 기술이 많이 이루어졌으며, 존목은 기존 문헌 편집이 많이 고찰된 것으로 대분류 조사항목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보여 주었다.



<그림 5> 세분류 조사항목별 증수



<그림 6> 세분류 조사항목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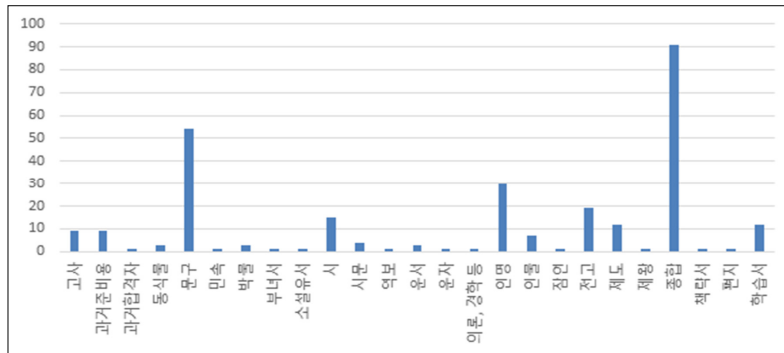


<그림 7> 제요의 세분류 조사항목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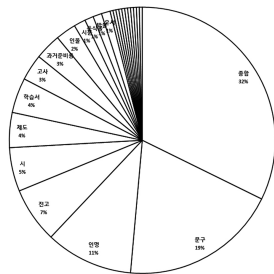


<그림 8> 존목의 세분류 조사항목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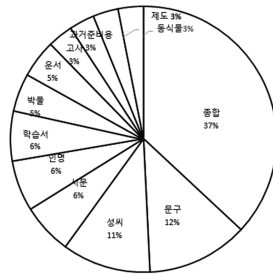
셋째, 유서류의 주제는 고사, 과거준비용, 동식물, 문구, 박물, 성씨, 시(시문), 운서, 인명, 제도, 종합, 학습서, 과거합격자, 민속, 부녀서, 소설유서, 역보, 운자, 의론과 경학, 인물, 자전, 잠언, 전고, 전기, 제왕, 책략서 등의 주제로 조사되었다(<그림 9> 참조). 그 비율은 <그림 10>과 같다. 그중 제요와 존목 수록 사고본의 주제의 분배는 <그림 11>, <그림 12>와 같이 공통적으로 종합적 유서와 문구가 가장 많이 수록되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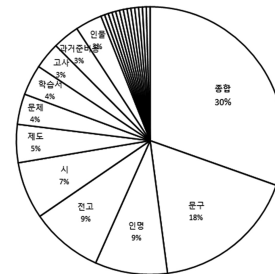
<그림 9> 유서류의 주제별 종수



<그림 10> 유서류의 주제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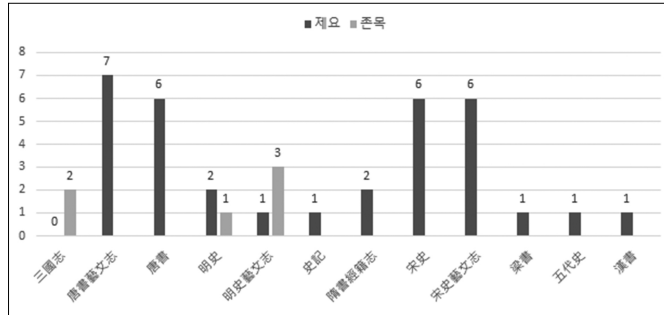
<그림 11> 제요의 주제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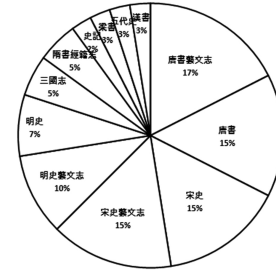
<그림 12> 존목의 주제별 비율

넷째, 정사와 사지목록의 인용을 통한 저자, 서명, 내용 등의 고증을 분석하고 있다. 정사와 사지목록의 전체 종수와 제요와 존목의 인용 종수 비율을 살펴보면 <그림 13>, <그림 14>와 같다. 전체적으로 「당사예문지」가 가장 많이 인용 고증에 참고되었으며, 그 다음은 「당사」, 「송사」, 「송사예문지」이다.

다섯째, 제요는 사고본 수록의 가치가 있는 고증과 설명 등이 주로 조사되었다면, 존목은 기존 문헌의 편집이나 합집, 요약 발췌 및 서점과 서적상 등의 상술과 같은 사고본으로 취하지 않는 이유 등이 기술되었음을 분석하였다.



<그림 13> 정사와 사지목록의 인용 종수



<그림 14> 정사와 사지목록의 인용 비율

여섯째, 『사고전서총목제요』 유서류 내용기술 분석 조사항목 중 세분류인 서명의 설명과 기존 문헌의 편집이 가장 많은 경우로 조사된 이유는 『사고전서총목제요』의 다양한 주제분야 중 유서류가 지닌 태생적 특징임을 알 수 있다.

7. 결 언

『사고전서』는 중국 청 건륭제 시기에 국가적 차원에서 황제의 명령으로 편찬되어진 대형의 총서이다. 이 논고는 『사고전서』의 서지목록인 『사고전서총목제요』 유서류를 대상으로 내용기술을 조사 분석하고, 제요와 존목 유서류의 내용기술의 차이를 살폈다.

유서류의 주제, 내용의 고찰, 내용의 분석 및 내용의 고증으로 대분류하고 이하 열두 개로 세분류하여 조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제요와 존목의 주제의 분배는 종합적 유서와 문구가 가장 많았으며, 존목에는 제요보다 다양한 주제의 유서류가 수록되어 있었다. 종합적 내용 기술의 조사 결과 제요는 문헌의 가치나 정사와 사지목록 그리고 국가와 사가목록 등의 목록류의 기록 인용 고증 및 문헌 비교 등 주로 고증과 설명 등이 주로 조사되었으며, 존목은 내용의 평가와 기존 문헌의 편집 등이 많이 기술되어 있었다.

『사고전서총목제요』 유서류의 내용 기술을 종합적으로 보면 제요의 경우 『사고전서』에 수록되는 문헌으로 가치에 대한 내용 고증과 분석이 주로 조사되었다. 반면, 존목은 사고본으로 수록되기에 미흡하거나 가치가 없는 기존 문헌 편집 등과 같은 내용의 고찰이 가장 많이 조사되었고 특히 기존문헌의 편집과 서적상과 서사본 관련 내용이 조사되었다.

이 논고에서 진행한 『사고전서총목제요』 중 유서류의 내용기술 조사 분석이 유서류의 이해를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며, 이후 관련 연구자의 서지적 연구를 위한 참고가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國學大師(Guoxuedashi). <<http://www.guoxuedashi.com>>.
- 리상용. “『四庫全書總目提要』의 목록기술방식에 대한 연구.” 『서지학연구』 69집(2017. 3). 267-286.
- 리상용. “『四庫全書總目提要』와 『四庫全書簡明目錄』의 목록기술요소 비교 연구.” 『서지학연구』 73집(2018. 3). 179-203.
- 百度百科(Baidu). <<https://www.baidu.com>>.
- 『四庫全書總目提要』. <<https://ctext.org/wiki.pl?if=gb&res=569524>>.
- 趙永來. “『四庫全書總目提要』의 ‘凡例’와 ‘案語’ 연구: 『凡例二十則』의 譯注를 중심으로.” 『서지학연구』 53집(2012. 12). 111-153.
- 趙永來. “『사고전서총목제요』의 『범례』를 통한 『홍씨독서록』 서지분석의 범주 연구: 『홍씨독서록』 史部를 중심으로.” 『서지학연구』 61집(2015. 3). 201-230.
- 한미경. “『사고전서총목제요』 유서류의 서지기술 분석.” 『서지학연구』 79집(2019. 9). 201-231.
- 互動百科(Baike). <<http://www.baik.com>>.

• 국문참고자료의 영어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Cho, Yong-Lae. 2012. “A Study on the Comprehensive Bibliography of Sago Collections of ‘Notes on the Use of a Book’ and ‘The Comments’: Centering on Annotate of the Twenty Kinds of Rules.” *Journal of Studies in Bibliography*, 53: 111-153.
- Cho, Yong-Lae. 2015. “A Study on the Categories for Bibliographic Analysis Used in Hong’s Dokseorok Based on the “Notes on the Use of the Book” of the Comprehensive Bibliography of Sago Collections -Centering on the “History Section” of Hong’s Dokseorok.” *Journal of Studies in Bibliography*, 61: 201-230.
- Han, Mikyung. 2019. “An Analysis of the Bibliographical Description in Youseoryu of Sagojeonseochongmokjaeyo.” *Journal of Studies in Bibliography*, 79: 201-231.
- Lee, Sang-Yong. 2017. “A Study on the Bibliographical Description of the Sikuquanshuzongmutiyao.” *Journal of Studies in Bibliography*, 69: 267-286.
- Lee, Sang-Yong. 2018. “A Comparative Study on Elements of Bibliographic Description between Sikuquanshuzongmutiyao and SikuquanshuJianmingmulu.” *Journal of Studies in Bibliography*, 73: 179-203.

